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40 호 [주제 제 25649 호] 주제 106 (2017) 년 5월 20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개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개발자들을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리만건동지, 뢰병철동지, 김정식동지, 정승일동지, 장창하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결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의 블은 담기가 힘차게 나붓기는 딤종암위원회청사앞으로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흐름호가 러져왔다.

전체 참가자들은 현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의 통장을 푸를 힙공격수단,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직접 구상하시고 정력적인 명도로 그 실현을 위한 창조적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주체적 혁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을 안아오시고도 그 모든 영광을 전사들에게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시련의 전만고비들을 완강하게 둘파하며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함으로써 동방의 혁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조선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세계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케트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들이 마음속신들에 바싹 조이고 강위력한 주체무기와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우리 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김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반석같이 다지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영웅적대진군을 선군의 혁보검으로 믿음직하게 지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말겨주신 나라의 국방력강화의 제1선창호를 지켜선 중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세상을 들었다놓는 《주체한》의 장쾌한 퇴성을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터쳐올림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혁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제일기수,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 잘 물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3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 씨 야 의 따 쓰 통 신 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일민투력성 기봉구, 마감진제품 및 과학기술성과전시회장을 돌아보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시품들을 보시면서 2년전의 기봉구전시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전시부문에서 태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시

었다.

그이께서는 전시품들의 가치수가 많고 질도 높은데 대해 평가하였다.

그이께서는 전시설비들과 자체

를 조선식으로 창안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즐기자고 밀고나가

나이제리아의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락방영예군인수지 일용품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합니다.

만민의 다함없는 흠토를 받으시는 영원한 래양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대항하는 김일성同志의 신문을 보시고 《20세기의 위인 김일성주석》, 《길세의 위인》,

《주체의 태양은 영원하리》, 《영원한

태양 김일성》 등 세계의 글들을 특집하였다.

양평마신문 《우 빠이스》는 우리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대항하는 김일성同志의 신문을 보시고 《20세기의 위인 김일성주석》, 《길세의 위인》,

《주체의 태양은 영원하리》, 《영원한

태양 김일성》 등 세계의 글들을 특집하였다.

양평마신문 《우 후후》, 민주봉고신문 《파

시다,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미중유 물질방면으로 적극 도와주시었으며 전환을 이룩한 20세기의 대불어 주체의 존활은 길이 및 나고있다고

제7차대회에서도 불멸의 공勋을 하시

기께서는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온 반세기의 기적을 높이 드리고 새

세계의 정치권으로 칭송한 국제사회 회의 반향을 펼쳤하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영원한 수령 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만민의 실

장속에 영생하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평마신문 《우 후후》, 민주봉고신문 《파

【조선중앙통신】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

의 현신생애에 대하여, 그이의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전해지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해 드립없이 계승되고 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보합비교신문 《노티피케이스》도 나

라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사회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전해지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해 드립없이 계승되고 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보합비교신문 《노티피케이스》도 나

라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사회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전해지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해 드립없이 계승되고 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정론

조국과 인민의 축하를 받으시라

한희와 격동의 대화가 조국강산을 친감한다.

주체적 혁강국전설사에 품기 할 위대한 사변을 맞이한 이 땅은 거대한 적정의 용암이다.

천만군민의 그 불같은 마음이 비쳤는가 하늘땅도 유난히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난 1·8일 우리 수도 평양에는 성대한 경축의 꽃비다가 펼쳐졌다. 평양체육관광장으로부터 청전거리, 대성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에 평화나와 주제제 해강국의 위력을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 수십만명의 각계층 군로자들과 청년학생들,

『한영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웨어 각동에 실정을 금치 못하면 도시민들, 전진 열마나 미끄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승리자를 인가.

지상대지상장거리전략탄도로에 트『화성-1·2』형 시험발사성공의 소식이 전해져 그 시작부터 천만의 심장에 물어들어온다. 미군과 그처럼 눈부신 사변을 알아온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보내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로 5월의 조국강산을 친감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길로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인 수족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굽게 가지고 대대한 과학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여 민족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로 새롭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한영의 거리에서 우리는 보았다. 조국에 이르는 승리를 두고 그처럼 기뻐하며 직장을 금지 못하는 민족의 정령님은 모습, 유풍로마를 깨끗이 닦아나와 축하의 노래부르고 머리환 전쟁행복과 청년대 학생들도 모두 평화나와 한영의 꽃을 걸친 5월의 열기,

어디 한민 참이보자, 조국을 다시 한번 떠나는 그 창한 손을! 열씨안보자, 회선의 영웅들을!

집집의 창가에서도 주체적 혁강국의 창가에 서로 한국당선사들에게 대한 이야기로 꽂을 퍼우고 수도의 수많은 시민들이 그들에게 말리는 불같은 드립니다.

온 나라를 친감하는 축하의 열기이다. 천리방선소로부터 북방의 철의 기지와 수원까지 하마차, 모내기전 두루 물끓는 흥정물풀과 흥제의 포구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빙방폭포에서 천제 군대와 인민이 한영의 꽃마다에 마음을 험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기쁜 날들이 많다. 오늘의 경사는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온 나라를 친통하는 것인가. 로드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축하는 이이하여 그처럼 드립고 열렬한 것인가.

승리의 화선에 올려펴진 우리 원수님의 그 말씀이 가슴을 친다.

우리 풍랑국이 도달한 국방과학기술발전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지상대지상장거리전략탄도로에 트트『화성-1·2』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참으로 중대하고 특별한 의의를 가지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은 참으로 새길수록 뜨겁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

이것이 오늘의 사변의 거창한 의미이다.

승리처럼 가슴벅찬 회회온 없다. 그중에서도 민족의 존엄사수권, 운명수호전에서의 승리처럼 큰 것은 없다.

이번 시험발사와 관련한 세계언

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요약하면

지상대지상장거리전략탄도로에 트『화성-1·2』형이 그 사거리와 고도, 성과적인 대기전체들입니다. 비추어볼 때 명백히 대중간판도미사일급으로서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평양기지지들을 넘어 미분토도에 놓게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면서 이제는 미국으로서도 북의 핵무력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뿐 아니라 미국내부에 수익으로 평화나와 주제제 해강국의 위력을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면 수십만명의 각계층 군로자들과 청년학생들,

『한영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웨어 각동에 실정을 금치 못하면 도시민들, 전진 열마나 미끄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승리자를 인가.

천만군민의 그 불같은 마음이 비쳤는가 하늘땅도 유난히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난 1·8일 우리 수도 평양에는 성대한 경축의 꽃비다가 펼쳐졌다. 평양체육관광장으로부터 청전거리, 대성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에 평화나와 주제제 해강국의 위력을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면 수십만명의 각계층 군로자들과 청년학생들,

『한영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웨어 각동에 실정을 금치 못하면 도시민들, 전진 열마나 미끄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승리자를 인가.

지상대지상장거리전략탄도로에 트『화성-1·2』형 시험발사성공의 소식이 전해져 그 시작부터 천만의 심장에 물어들어온다. 미군과 그처럼 눈부신 사변을 알아온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보내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로 5월의 조국강산을 친감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길로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인 수족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굽게 가지고 대대한 과학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여 민족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로 새롭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한영의 거리에서 우리는 보았다. 조국에 이르는 승리를 두고 그처럼 기뻐하며 직장을 금지 못하는 민족의 정령님은 모습, 유풍로마를 깨끗이 닦아나와 축하의 노래부르고 머리환 전쟁행복과 청년대 학생들도 모두 평화나와 한영의 꽃을 걸친 5월의 열기,

어디 한민 참이보자, 조국을 다시 한번 떠나는 그 창한 손을!

열씨안보자, 회선의 영웅들을!

집집의 창가에서도 주체적 혁강국의 창가에 서로 한국당선사들에게 대한 이야기로 꽂을 퍼우고 수도의 수많은 시민들이 그들에게 말리는 불같은 드립니다.

온 나라를 친감하는 축하의 열기이다. 천리방선소로부터 북방의 철의 기지와 수원까지 하마차, 모내기전 두루 물끓는 흥정물풀과 흥제의 포구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빙방폭포에서 천제 군대와 인민이 한영의 꽃마다에 마음을 험하고 있다.

힘이 없으면 악자의 설을 좁힐 줄을 알았던 우리는 원수님의 그 대국민의 정성 뿐만 아니라 기운과 용기를 토대로 높아졌다. 그리고 힘없는 우리에게는 천제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손손 물려줄 위대한 운명수호의 보

장을 더워 얹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이 세상 제일 크고 향기로운 감자와 풋 öd일을 엮어 드리고싶다. 민족란대의 속원을 풀어주시며 자자

조선의 힘은 미국의 공포전략에 파멸을 선언한다

미국의 면상을 다시금 후회하며 우려의 새형의 전략으로 깨트가 만리태공으로 힘차게 솟구쳐 올랐다.

우리 공화국이 도달한 국방과 학기술발전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지상대지상증강거점전략으로 깨트가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주제적해 경국전사에서 특기할 위대한 사변으로 했던 것이다.

지주전수호의 또 하나의 위력한 보급인 『주체판』이 탄생한 것은 폐제와 전쟁을 추구하며 핵공간을 일삼는 미국을 어려게 더스러워 하는 가을 세계에서 보여준 역사의 쟁기이며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조선의 푸현대한 힘의 분출이다.

오늘날 조선에 대한 『화제의 압박과 판례』를 떠들며 그 누구를 시험해보려는 미국의 광포전략, 미국식 하세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다.

조선은 대내외 세계를 이으며 인류의 넘원인 평화를 업종히 바파하고 세계를 통한 속에 불어넣는 악의 제국 미국에 최후竭망을 선언한다.

* * *

광포전략은 제국주의 침략정책에서 기분을 이룬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국도의 불안심리와 협박분위기를 조성하여 침략적 무적을 손쉽게 달성하려는 광포전략은 대내에서 시민지침평화에 나선 혁령들은 군사부역이 약한 나라들의 해역에 대포를 쌓아 한 헌선들을 들이밀고 소모하는 광포함으로 강타하던 『포함외교』에 기관하고 있다.

『포함외교』가 침략국가들 속에 유행되고 있던 시기 미국도 그것을 해외침략의 주요방식의 하나로 삼았다.

19세기 60년대에 미국이 친략선 『서먼』호를 끌고 와 대포를 쏘아내며 조선봉 전쟁부리를 확장하고 그 세기 말에 같은 방식으로 하와이를 점령한 것은 미국의 상두적침략수법인 『포함외교』의 전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앞두고 세계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제국주의 우두머리로 통장한 미국은 『포함외교』 전략을 보다 복합적인 핵침략전략으로 바꾸었다.

전후 미군제와 관련된 포크스 회장을 하루 앞둔 1945년 7월 16일 첫 원자탄시험에서 성공한 미국은 다음날부터 힘의 월장에서 서서히 전장을 저들의 폐단적 목적으로 맞게 물어가려고 하였다.

쏘련의 대일 참전이 시간문제로 뛰어난 미국은 황급히 일본의 해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사상 처음으로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극 44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거나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쓰련사람들을 하부평균 2만명 죽음으로 물어간 파손도이월란드의 전쟁범죄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세계에 미증유의 핵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전후 세계정치구도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갈라지게 되자 미국의 전략은 날로 장

성 강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나라들을 공격하고 통제시키기 위해 흑색전선과 함께 그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반동적인 『백악기』 행위로 자국민들을 광적인 『백악기』 행위로 자국민들을 훈련하고 그의 외연한 행진을 선포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악마』 회하는 흑색전선과 함께 그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세계 140여개 나라와 지역에 수천개의 군사기지와 시설들을 설치하는 등 끊임없는 군비 확장과 핵무력 증강 등을 사회주의 나라들을 『악마』 회하는 흑색전선과 함께 그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 후 무장간첩 『추위를 봄으로』 호가 우리의 행위에 대처되는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연장 열고 『군사적 보복조치』와 『전면전쟁』을 흘리며 우리를 향해 밭나갔다.

우리 항구들에 대한 불체와 군사시설 및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중폭격, 원산 앞바다

에서의 무력시위와 핵공격 등을 예상한 당시 미국의 『보복조치』를 그에 따라

록 해공군침략무력의 군사적 맹동은 전세

계를 제 2의 조선전쟁이 되는 커다란 불안과

공포로써 물어놓았다.

인간의 사상과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내외 시위를 혼란시켜야 한다는 전 미군정부 정보국장은 1974년 2월 3,800여 차, 1975년에는 2만 8,150여 차에 달하였다.

한편 군사작전을 조직한 미국은 그를 구실로 남조선 강정 미군에 전투대체로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남조선 일대에 핵전쟁방지대를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국에 대한 우상과 위협감을 조성해왔다.

지어 미국은 사회체계, 언론에는 물론 헐리우드를 비롯한 영화계까지 저들의 광포전략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강변한 미군』, 『강대한 미국』의 히트를 악용하여 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금융, 경제적으로 가혹한 제

제를 강요하고 인민 생활방지대에 맞대

위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국에 대한 우상과 위협감을 조성해왔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최초의 핵보유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상임미사부를 차지한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적외교력을 반미자주적인 나라

들을 정직으로 암암리에 암암리에 향고려로

물어가는 공간으로 살고있다.

세계적 친족통합행국,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평화기초로 되었다.

